

‘담장 분쟁’ 골 깊어가는 광주 동림 주공아파트



분양·임대아파트 주민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광주시 북구 동림동 주공아파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왼쪽이 분양아파트, 오른쪽이 임대아파트이며, 임대아파트 단지 옆으로 문제의 흰색 철제 담장이 세워져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담장 일부 사라졌지만 ‘이웃사촌 앙금’ 아직도

임대(1단지)와 분양(2단지)아파트를 가르는 철제 담장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광주시 북구 동림동 주공아파트(동천마을) 주민들간 분란이 담장 일부가 철거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예전처럼 담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초 동천마을 아파트는 광주에 사는 처음으로 단기간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담장없는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분양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로 261m에 달하는 담장이 설치되면서 분양·임대 주민간 갈등이 시작됐다. 결국 광주시 북구청의 강제 철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2단지 주민들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1단지 주민들은 “CCTV 방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나. 마치 범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 같다”며 항의하고 있다. 특히 1단지 주민들이 지난 7일 ‘잔여구간 221m의 담장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감사원과 국가권익위에 제기하면서 양측 주민간 감정 싸움은 격화되고 있다. 1단지 주민대표 오씨는 “원래 담장이 없었던 곳에 설

분양 주민 “임대 차별 매도 억울하다”
임대 주민 “범죄자 취급 하느냐” 항의

이 담장 261m 중 40m를 철거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된 듯 보였다. 담장 일부가 철거되면서 1단지 주민들은 개방된 통로를 통해 학교와 화원, 버스 승강장 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앙금은 쉽게 가라 앉지 않았다. 이번에는 최근 2단지 측이 CCTV의 방향을 1단지 주민들이 오가는 통로쪽으로 바꾼 것이 발단이 됐다. 2단지 측은 도난사건, 공원 기물파손, 쓰레기 투기 등을

고 비난했다. 2단지 한 주민은 “2단지 주민들이 마치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차별하는 것처럼 매도돼 억울하다. 2단지 주민의 땅에 담장도 마음대로 못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광주시 북구청 관계자는 “양 단지 주민들이 서로 서먹서먹하고 일부는 적대감까지 드러내 안타깝다”며 “공동체 의식을 살려 정을 나누는 ‘이웃사촌’으로 지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lee@

해경 숨지게 한 中 선원 11명 중형

광주지법 목포지원 징역 7년~2년6개월 선고

불법 조업을 단속 중이던 목포해양경찰서 박경조(사망 당시 48) 경위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중국 선원 11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재판장 이승환 부장판사)은 18일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박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선적 17t급 유저망 어선 요공어 15138호 선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주 겸 선장 허신취안(河新權·36)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선원 시우리정(修立成·34)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50만원 등 2명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상리엔푸(尙連福·28)씨 등 선원 8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상에서 대한민국의 재산을 약탈하고, 주권을 침해한 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형법 제141조 제2항), 배타적경제수역(EEZ)법 위반(담보금 3천만원 부과)혐의가 적용됐으며, 검문

검색에 사용하는 단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공용선박과괴(형법 제144조 제2항)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이들은 지난 9월25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기를 잡던 중 자신들을 단속하던 목포해양경찰 소속 해양경찰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박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선장은 징역 10년, 다른 선원들은 7~3년이 각각 구형됐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말다툼 끝 방화 내연녀 아들 숨져

40대 남성·내연녀도 중태

40대 남성이 결별을 요구한 내연녀와 말다툼 끝에 집에 불을 질러 내연녀의 다섯살난 아들이 숨졌다. 1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송모(44)씨는 지난 17일 밤 11시53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J아파트에 사는 내연녀 A(45)씨의 집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A씨의 아들 J(5)군이 숨지고 A씨와 송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A씨와 송씨는 서울지역 병원에서 치료중이나 모두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불은 아파트 내부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추산 1천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불을 지르고 도주하면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죽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지난해 초 A씨를 만나 사귀어 왔으며 최근 A씨와 결별 문제를 놓고 잦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범행 직후 인근 병원에서 도망가 치료를 받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송씨가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아파트 분양사기 일당 추가 적발

전국을 무대로 아파트 분양 대금과 회사설립 자본금 등을 가로챈 전문사기조직 일당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18일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가로챈 신모(44)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10월14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남구로 새마을금고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3여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갖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부동산 컨설팅회사를 운영하는 L(43)씨에게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속여 충북지역 모 아파트 4채의 소유권을 이씨에게 이전받은 뒤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등은 또 지난 12월 16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대부업자 등을 속여 자금을 가로챈 등 전국을 무대로 총 7회에 걸쳐 14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신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염모(34·장흥군 장흥읍)씨 등 4명을 지난달 15일 구속하고 이모(53)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신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공사 부실 가스 폭발사고
부주의한 사용자도 책임

가스배관 공사 잘못으로 발생한 폭발사고라 할지라도 가스 배관을 간과하고 부주의하게 가스레인지의 컷다면 사용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2단독 최수진 판사는 18일 최모(여·44)씨가 도시가스 시설 설치업자 심모(41)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심씨는 700여만 원, 직원인 또 다른 심씨는 400여만 원을 최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독거노인 살해 40대 영장

무안경찰은 18일 60대 독거노인을 살해한 이모(48)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밤 9시에 무안군 일로읍 자신의 집에서 빛 독축을 위해 찾아온 김모(69)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농업을 포대에 담아 김씨 집 측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가 집에까지 찾아와 “빌려간 돈 5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한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며칠 전 김씨와 다툰 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흉기와 혈흔 등을 발견, 이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나원침 (7682) 김중두



다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택 및 상점환경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역시 : 061) 337-0571

철부지 10대들 닭 사육장 불질러

○철부지 10대들이 호기심과 재미삼아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불태웠다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18일 광주시 동구 학동 모 시장 내 닭 사육장에 불을 지른 김모(16·중2)군 등 초·중·고생 4명을 방화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12일 밤 11시30분께 임모(여·68)씨가 운영하는 닭·오리 판매점 사육장에 휘발유 1.5ℓ를 뿌리고, 불을 질러 닭과 오리 60마리(170만원 상당)를 죽이는 등 2차례에 걸쳐 사육장 2곳에 불을 낸 혐의.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단지 닭과 오리가 불에 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불을 낸 사건”이라며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엽기 동영상들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혀를 끌끌.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 It features a cartoon character and text: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Use good hearing aids),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We will help you get rid of hearing loss). It lists a main store at (062) 227-9940 and a branch at (062) 227-9970.

Advertisement for '대수생 선행학습반' (Advanced Learning Class for High School Seniors). It lists various subjects like English, Math, and Science, and mentions a '1월 2월 3월' (Jan, Feb, Mar) schedule. It also features a grid of photos of teachers and a '광주 예비학원' (Gwangju Pre-school) logo.